

# 인도 8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하며 예상을 큰 폭 상회



Economist/신용국경제 강현구  
02-6114-2949 hg.kang@kbfq.com  
RA 김신혜  
02-6114-2925 chloe.kim@kbfq.com

- ✓ 8월 산업생산, 전반적으로 양호한 개선세 시현
- ✓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 모두 증가세로 전환
- ✓ 경기둔화 우려를 크게 완화시킬 정도의 긍정적 개선

### ▶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하며 예상 (+2.6%) 상회

12일 발표된 인도 8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하며 전월 (+0.9%)보다 증가 폭을 크게 확대했다. 산업 전반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IT관련 산업이 전체 산업생산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광업과 전력 부문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9.5%, 8.5% 증가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제조업은 +3.1%로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세부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컴퓨터 및 전자제품 (+24.9%), 제약 (+16.5%), 수송장비 (+11.1%)는 증가한 반면, 가구 (-16.0%), 담배 (-15.1%), 출판 (-11.4%), 전기장비 (-9.0%)는 감소했다.

### ▶ 견조한 건설투자에 이어 설비투자도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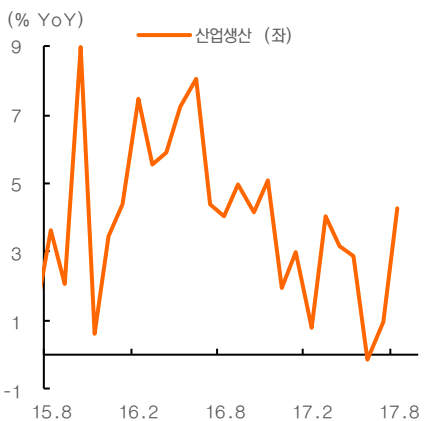
용도별로는 1차산품과 비내구소비재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7.1%, 6.9% 늘어나 산업생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구소비재도 같은 기간 1.6% 증가하여 소비재 관련 생산이 모두 증가되었다. 자본재는 +5.4%로 지난 4월 이후 지속된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인프라/건설용품은 2.6% 늘어나며 증가세를 확대하는 등 투자와 관련된 항목이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중간재는 0.2% 감소했으나 전월 (-1.7%)보다 감소 폭이 축소되었다.

### ▶ 개혁의 부정적 영향 감소로 향후 경기회복세 확대 예상

인도 산업생산은 8월 들어 경기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는 1) 소비 중에서도 내구소비재가 증가세로 전환, 2) 설비투자과 관련된 자본재 생산이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7월 GST 도입에 따라 소비세율이 인상된 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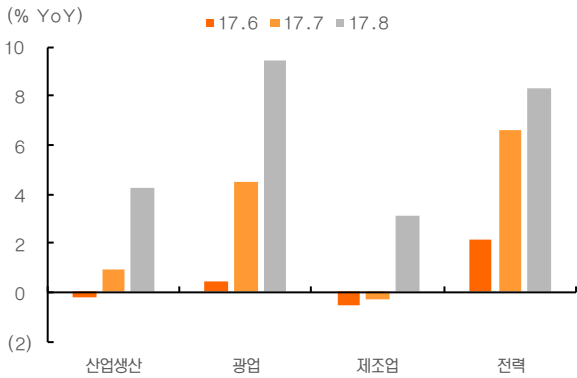
인도 경제성장률이 2분기 예상 외의 부진을 나타내 인도 정부에서는 조기 재정투입 및 일부 산업에 대한 세율 조정 등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자칫 지연된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와 맞물려 향후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경기부양책 시행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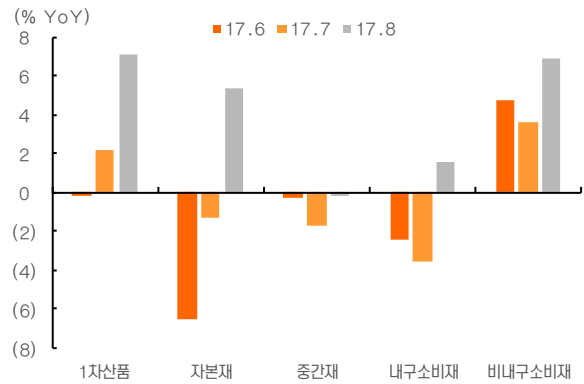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KB증권

그림 1. 8월 산업생산, 광업과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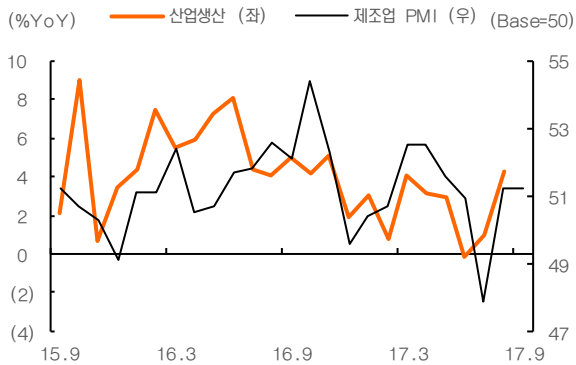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KB증권

그림 2. 용도별 기준으로 소비와 투자 모두 증가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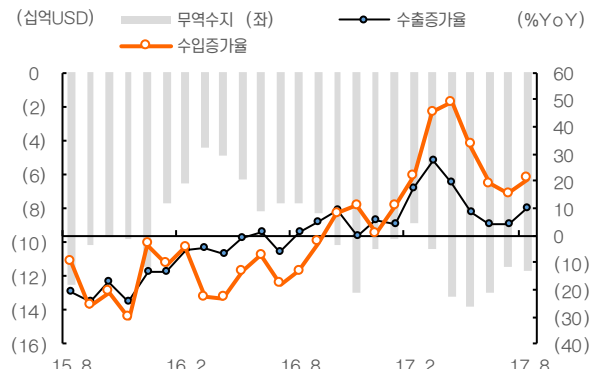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KB증권

그림 3. 9월 제조업 PMI, 51.2로 전월과 동일



자료: Datastream, KB증권

그림 4. 수출 증가율이 확대되며 경기회복을 뒷받침



자료: Datastream, KB증권

투자자 고지사항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